CSU Monthly 2025년 12월호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WEEKLY Headline

- 11월 첫째 주: 대학혁신지원사업 '2025 혁신 DAY' 성황리 개최
- 11월 둘째 주: 광주센트럴병원 김석원 원장, 모교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 **11월 셋째 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어울림한마당 개최**
- 11월 넷째 주: 의과대학 제3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에 1억 5,200만 원 기부
- **12월 첫째 주: 조선대-전남대-광주광역시 글로컬대학 비전 선포**

조선대-조선간호대, 광주시와 '2025 글로컬대학 비전' 공동 선포

'웰에이징 Asia No.1' 비전 제시
웰에이징 특성화로 지역 미래 연다

조선대학교와 조선간호대학교가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와 함께 11월 24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광주 글로컬대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며 '웰에이징 Asia No.1 대학' 비전을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 글로컬대학 사업에 선정된 지역 대학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웰에이징 인재! 광주의 내일을 열다!!'라는 공동 비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선대 김춘성 총장, 조선간호대 박명희 총장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전남대 이근배 총장, 지역 기업인,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글로컬대학 추진과제 발표, 학생·기업인과의 양방향 공감토크, 비전 선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비전선언문에는 ▲인공지능·웰에이징 특화 인재를 양성하여 미래를 선도 ▲지역-대학-산업 상생 발전 생태계 구축 ▲글로벌 허브 중심지로의 도약 ▲모두가 성장하는 지역혁신의 새로운 표준모델 구축 등 미래 발전 전략이 담겼다.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는 전 생애 웰에이징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 교육·연구 협력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에 따라 '웰에이징 Asia No.1 대학'을 비전으로, 웰에이징밸리 구축, 웰에이징 기술융합원 및 글로벌 자회사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웰에이징 특화 인재 1만 명 양성 ▲기업유치 및 창업기업 200개 육성 ▲글로벌 인재 5천 명 양성 등 지역 미래산업을 견인할 인재·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향후 5년간 4,700억 원을 투입해 정주형 교육, 좋은 일자리, 청년이 머무는 광주를 만들고, '대학-지자체 동반혁신모델'을 완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혁신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어울림한마당 개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법인 산하 직원 한자리에
글로컬대학 선정 및 조선간호대 통합 기념 의미 더해

조선대학교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속 구성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성료했다.

11월 8일 조선대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이수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 양고승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법인, 조선대,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및 산하 중·고등학교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여해 한마음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CHOSUN, We Are One!'을 주제로 열린 이번 어울림 한마당은 조선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법인 산하 모든 교육기관의 직원이 함께한 자리로, 상호 이해와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조선대가 5년간 최대 1,400억여 원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되고, 내년 조선간호대와의 통합을 앞두고 있어 이번 행사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더욱 컸다.

행사는 양고승 위원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족구, 풋살,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과 명랑운동회, 홍보부스,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웃음과 응원 속에 서로 교류하며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장에는 조선대학교 RISE사업단 대학자원공유센터, 글로컬30 추진본부의 홍보 부스, SW중심대학사업단의 AI·SW 체험부스, CSU창작마을센터의 3D프린팅·머그컵·키링 제작 체험부스, 'E-깨끗한 캠퍼스 실천운동' 홍보부스, 조선이공대학교의 운동치료테이핑 부스 등이 함께 운영돼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했다.

김이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산하 기관이 모두 모인 뜻깊은 자리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상호 협력과 화합을 통해 조선대학교의 발전을 함께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대학교 가족 모두가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제3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에 1억 5,200만 원 기부

반세기 만의 모교 방문 기념… "후학 양성·연구 발전의 밑거름 되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제3회 졸업생들이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 후학 양성을 위해 1억 5,2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졸업생들의 5,500만 원 기부에 이어 세 번째 졸업 50주년 기념 발전기금이다.

조선대 의과대학은 지난 11월 16일 조선대 의과대학 1호관에서 '의과대학 제3회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및 발전기금 기부식' 행사를 개최했다.

기부식에는 1975년 졸업한 제3회 졸업생 서재홍 대표(조선대 제15대 총장)를 비롯해 9명의 동문들과 조선대 전제열 부총장, 안영준 의과대학장, 김진호 조선대병원장, 정성헌 동창회장, 신병철 의과대부학장, 재학 중인 후배 학생들 등 30여 명이 참석해 기부의 뜻을 되새겼다.

행사는 ▲환영사 및 격려사 ▲후배 학생들의 감사 인사 및 꽃다발 전달 ▲의과대학 연혁·현황 소개 ▲졸업 50주년 회고 영상 시청 ▲기부증서·동판·감사패 전달 ▲교내·병원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전제열 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1975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님들의 발걸음은 조선대 의학 교육의 역사 그 자체"라며, "선배님들의 뜻을 잊지 않고 미래 의료 교육 체계와 연구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에 다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의료인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김진호 병원장은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찾아주신 선배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선배님들의 헌신은 대학과 병원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서재홍 동문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20살에 처음 교정을 밟은 뒤 반세기가 지나 모교를 다시 찾으니 감회가 깊다"며, "이번 행사가 작은 울림이 되어, 호남 의료인 양성의 중심인 조선대 의과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과 3학년 이재섭 재학생 대표는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나눔은 후배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따뜻한 격려"라며 "인술을 실천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금은 조선대 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연구 역량 강화,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등 의과대학 발전 전반에 사용된다. 대학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의료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한편, 조선대는 최근 교육부 '의대 교육혁신지원사업'에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되며 교육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